

아중호수 주변 두꺼비 구한다

전주시, 봄철 산란기 맞은 두꺼비 로드킬 방지 위해 전용 생태통로 제공

전주시가 매년 봄 발생하는 아중호수 주변 두꺼비 로드킬을 예방하기 위해 전용 생태통로를 제공기로 했다.

시는 해빙기와 봄 산란기를 맞아 아중호수 주변 기린봉과 아중습지를 오가는 도로에서 산란기를 맞은 두꺼비들의 로드킬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미 시는 해마다 반복되는 아중호수 인근 두꺼비 로드킬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국립생태원과 환경단체 등 전문가 지문을 거쳐 해당 구간에 U형 생태통로와 유도 울타리를 설치했다.

이에 따라 산란을 위해 이동하는 두꺼비들이 유도울타리와 생태통로를 이용해 안전하게 도로를 건널 수 있게 됐다.

또한 두꺼비 이동 안내판과 서행 및 우회 운전 안내 현수막 등을 설치해 시민들의 서행 운전을 유도하고, 특히 유아2동 주민센터와 협조로 주민 홍보를 하고 있다.

시는 산란기에 이어 오는 5월경에는 습지에서 부화한 새끼 두꺼비가 이동하면서 추가 로드킬 우려가 있는 만큼 해당 시기에 맞춰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차량 우회를 안내하고 차량 통행

도 제한할 예정이다.

김용삼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2~3월 산란기와 부화기인 오는 5월경 아중호수 주변을 지나는 시민들에게서는 두꺼비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서행 운전하거나 다른 도로로 우회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한편 기후변화지표종인 두꺼비는 주로 2~3월경 겨울잠에서 깨어나 산란을 위해 산에서 습지로 이동하고, 5월경에는 새끼 두꺼비들이 습지에서 무리를 지어 산으로 올라가는 습성이 있다. /김욱기 기자



전북대학교병원은 공공임상교수를 선발·임용하고, 안과 진료 공백이 발생한 군산의료원으로 순환근무를 3월부터 지원한다.

전북대병원, 공공임상교수 군산의료원 안과 진료 지원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은 공공임상교수(안과 1명)를 선발·임용하고, 안과 진료 공백이 발생한 군산의료원으로 순환근무를 3월부터 지원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는 2022년부터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립대병원 소속의 공공임상교수를 선발하여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순환근무로 배치하여 감염병 등 필수의료 및 수련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북대병원 공공임상교수는 현재까지 총 5명 임용됐으며, 군산의료원에 1명(안과), 진안의료원에 4명(신경과, 내과, 외과, 정형외과) 근무하고 있다.

특히, 군산의료원은 최신 장비인 굴

절검사기, 접착식·비접착식 안압계, 세극등현미경 등 장비와 환경은 갖추어져 있지만 인력을 구하지 못해 2022년 1월부터 진료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나 전북대병원 공공임상교수 파견으로 새롭게 안과 문을 열 수 있게 됐다.

2023년 군산 지역 노인 인구 비율은 21%로 전국 평균 대비 3% 높은 수치이며, 노인성 안질환 환자 수도 늘어나는 추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22년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사이 노인성 안질환인 황반병성 환자 수가 2.3배 급증했다.

군산 지역 유일한 공공의료기관인 군산의료원에서 황반병성 등의 노인성 안질환을 초기에 정확하게 진단하면 지역 주민의 실명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전북대병원은 공공임상교수가 진료, 교육, 공공의료 등 균형 잡힌 지역 필수 의료 인재를 성장할 수 있도록 공공임상교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고안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정형외과 공공임상교수가 전북대병원에서 주일 근무하며 수술 및 술기교육에 참여하고 있으며, 내과 공공임상교수는 소화기내과 컨퍼런스 참여 및 내시경 술기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유희철 전북대학교병원장은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를 통해 지역 거점의료기관으로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의료기관과 협업을 통해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욱기 기자

“새활용 산업 활성화 주도할 입주기업 찾아요”

전주시새활용센터 다시봄, 21일까지 3개사 공개 모집

전주시새활용센터 다시봄(센터장 이은주)은 오는 21일까지 새활용 산업 활성화를 주도할 새활용 관련 입주기업 3개사를 공개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전주를 기반으로 활동할 새활용 산업 분야에 관심 있는 개인과 기업 및 단체, 법인 등으로, 새활용 문화 확산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와 아이디어를 갖춘

기업이면 된다.

선정된 기업은 향후 2년간 입주해 전주시새활용센터 다시봄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사업 및 전문가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입주 기간 2년 만료 이후에는 연장 심사를 거쳐 2년간 추가 입주도 가능하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새활용센터 다시봄 누리집에 게시된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이은주 센터장은 “지역 내 자원순환과 지속가능한 새활용산업 육성, 새활용 문화 확산을 위해 새로운 가치 창출에 도전하는 기업들이 발굴되길 기대한다”며 “센터는 앞으로도 새활용산업 육성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양질의 독서교육 강좌 ‘전주시민독서학교’

전주시, 8월 7일까지 시립도서관 등 11곳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완연한 봄기운과 함께 도서관에도 봄이 왔음을 알리는 전주시민독서학교가 운영된다.

전주시는 11일부터 8월 7일까지 총 25개 과목으로 구성된 '2024 전주시민독서학교'를 시립도서관 등 11곳에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지난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전주시립도서관은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7일까지 전주시민독서학교에 참여할 수강생을 모집했으며, 400여 명의 시민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다.

특히 올해 개설과목 중 '글쓰기 심화반'과 '브런치 작가 되기', '일상의 글쓰기', '드로잉과 함께하는 그림일기' 등은 수강생들의 높은 관심 속에 조기 마감되면서 인기 프로그램으로 등극했다.

또한 올해는 10개의 신규 과목이 개설돼 시민들에게 더욱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독서교육 분야 자격증 취득과 여러 기관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자원활동가를 양성하는 교육의 산실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시민들이 시민독서학교를 통해 독서교육 분야 등의 역량을 키우고, 그 역량을 활용하여 지역을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강준 전주시 도서관본부장은 “양질의 독서교육 강좌를 제공하는 전주시민독서학교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전주시민들의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다채로운 과목으로 발전된 독서교육을 제공해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 김고운 전북대 교수 초청 ‘치매 친화적 문화조성 강좌’ 개최

전주시가 모든 시민이 치매에 대한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치매안심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치매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8일 덕진예술회관 공연장에서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통합돌봄서포터즈(건강지킴이)와 치매환자 가족, 일반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매 친화적 문화조성을 위한 강좌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에는 김고운 전북대학교 신경과 교수가 강사로 초청돼 ‘알기 쉬운 치매의 이해’를 주제로 △치매의 정의 △치매 조기 검진 필요성 △일상생활에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치매 환자 대응법 △치매 환자를 돌볼 때 유의 사항 등을 안내했다.

특히 강연에는 치매환자 가족과 만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돌봄과 봉사 업무를 추진하는 통합돌봄서포터즈 등이 대거 참석해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치매 노인의 특성과 치매 노인을 돌보는 방법 등을 배우기도 했다.

이와 관련 시는 한해 △치매 치



전주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8일 덕진예술회관 공연장에서 치매 친화적 문화 조성을 위한 강좌를 개최했다.

료 관리비 지원 사업 △조호물품 지원 사업 △치매 무료 조기 검진 사업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운영 등을 통해 치매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돌봄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동시에 시는 치매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고, 더욱 촘촘한 치매안심망을 구축하기 위해 △치매안심마을 운영 △치매안심가게 및 치매극복선도단체 지정 △치매예방 교육 및 치매파트너 교육 등도 추진한다.

이에 앞서 전주시 치매안심센터는

지난해 청소년기관과 복지관, 경로당, 시니어클럽 등에 찾아가 치매 인식개선을 위한 치매 예방 교육과 치매파트너 교육 등 총 57회(2887명)에 걸쳐 치매 예방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강연을 통해 돌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종사자들에게 가장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시보건소는 치매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